



한국형 에이즈바이러스

1. 한국형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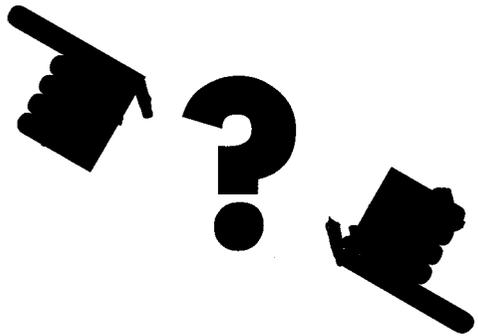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서 지난 1993년부터 수행한 연구결과로서 분자생물학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46명의 국내 감염자로부터 HIV-1 nef유전자를 분리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41개의 B형, 3개의 C형, 1개의 D형을 발견하였다. 소위 T형 비(非) B형 바이러스들은 모두 이성간 접촉(특히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이한 것은 41개의 B형 중 35개가 외국의 바이러스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유전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바이러스'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국내 HIV-1의 유형이 다양한 데, 특히 비(非) B형들인 A, D형에 감염된 사람들은 모두 이성접촉으로 감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가장 특이한 만한 것은 HIV-1 B형의 대부분이 한 그룹에 속하고 이 그룹은 외국의 바이러스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HIV-1과 HIV-2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흔히 HIV라 칭하는 HIV-1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2번째 형태인 HIV-2는 둘 다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HIV-1과 HIV-2 둘 다 면역체계를 포함해서 인체의 다양한 부분을 손상시켜 기회감염에 쉽게 노출시킨다. HIV-2에 의한 감염이 덜 심각하고 증상의 수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두 바이러스 모두 인간의 면역체계를 파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HIV-1의 발생은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으며 임상증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유사하다. HIV-2는 유전적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변종이며 1985년에 서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 HIV-1과 마찬가지로 HIV-2도 전세계적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이즈의 99%는 HIV-1에 의해 초래되었으며 감염경로는 HIV-1이나 HIV-2 모두 동일하다.

..... '한국형 바이러스'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국내 HIV-1의 유형이 다양한데, 특히 비(非) B형들인 A, D형에 감염된 사람들은
 모두 이성접촉으로 감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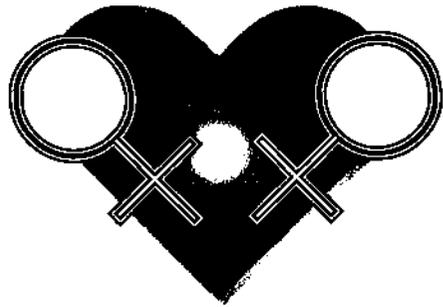
3. 구강성교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가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의 결과이다. 상대방이 HIV감염자일 경우, 구강성교를 통한 감염이 가능하다.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입안의 점막세포들은 림프선이나 혈관으로 HIV를 운반하기도 한다. 입이나 목구멍 안에 혹은 그 주위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 위험성은 더 커진다. 입이 음경이나 질, 또는 항문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혈액, 정액, 질 분비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입 속에 사정하는 상대방과의 구강성교는 HIV감염의 위험성을 한층 더 증가시킨다. 또한 섹스 상대방 중 하나라도 성병이 있으면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성교를 원할 경우에는 음경에 고무 콘돔을 사용하라. 조사에 따르면 음경에 고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HIV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콘돔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HIV 감염자일 경우 전염될 위험을 크게 낮출 수는 있다.

4. 레즈비언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가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레즈비언간의 성접촉을 통해 HIV가 감염된 기록이 있다. HIV는 혈액과 질 분비물, 질 내부의 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서 발견될 수 있다. HIV감염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염된 여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면 섹스하는 동안에 이를 감염시킬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갖는 패턴을 보면 주로 오랄 섹스를 갖거나 서로 자위를 하는 접촉을 하게 된다. 이들은 성적인 장난을 즐긴다.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가 HIV감염자일 때 항상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쪽 여성이 HIV에 감염되었다면 월경시 혈액, 질액, 소변, 배설물, 젖 등이 구강, 직장, 질, 혹은 상처 난 피부를 통해 HIV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같은 여자끼리 성관계를 해온 에이즈 여성환자들에 대한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 95%가 주사약을 사용해 왔으며 5%가 수혈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편집실)



병원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치료 포기...

이 선희 | 부산대 의대 감염내과 조교수

**거의 모든 환자가
처음 에이즈를 진단 받으면
심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겪는다.
환자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은
다양한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빨리 극복하고
치료를 임하는 사람들의
예후가 훨씬 좋다는 것이다.**

언젠가 에이즈로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한 분이 외래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다. 이분은 배달 한 번씩 외래로 다니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의 사업 거래처에서 일하는 잘 아는 분을 외래에서 마주친 것이다. 그 분은 결핵성 임파선염 때문에 입원치료 후 역시 배달 한 번씩 외래로 다니고 있었다. 환자 분이 방문하는 요일을 바꾸고 월말에 오던 스케줄을 중순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후에도 방문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하여 주었다. 그래도 이 환자 분은 병원에 올 때마다 결핵 환자가 오늘 예약되어 있는지를 항상 물어 보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우연히 두 분은 외래에서 몇 번 마주치고 만났다. 물론 서로 상대방의 병이 무엇인 지는 몰랐지만 이후로 에이즈 환자 분은 병원 방문이 뜸해지더니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환자가 처음 에이즈를 진단 받으면 심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겪는다. 환자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은 다양한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빨리 극복하고 치료에 임하는 사람들의 예후가 훨씬 좋다는 것이다. 오늘날 에이즈는 불치병이라기 보다는 당뇨병이나 만성간염처럼 조절이 가능한 만성병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면역능력이 회복되고 에이즈로의 진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은 있다. 처음 약을 복용할 때 환자에 따라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또 다시 인내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비를 잘 넘긴 환자의 상당수는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한다. 물론 에이즈 환자들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 환자처럼 우연히 외래에서 지인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일은 아니다. 감염내과는 에이즈 환자들만이 오는 곳은 아니다.

폐렴, 결핵, 기타 각종 감염병 환자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등 여러 환자들 이 내원을 한다. 그러므로 감염내과에서 지인을 만났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지 않는다. 에이즈가 아닌 환자들 이 더 많기 때문이다.